

영암 무화과 냉해 심각

재배면적 56% 피해…올 생산량 예년 20~30% 그칠 듯

전국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영암지역의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는 등 지난 겨울에 심한 냉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암군은 “아열대 수종인 무화과나무 냉해 실태 조사결과 전체 재배면적(264㏊)의 56%인 149㏊가 냉해로 과실 생산이 어려운 상태”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로 무화과나무가 죽어 싹이 트지 않거나 가지가 아닌 곳에서 싹이 나는 이상 발아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수확량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재배 농민들은 “한창 자랐어야 할 나무에 싹이 트지 않아 양상한 가지만 남아있다”면서 “그동안 동해를 입었어도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고, 절반 정도 수확을 했었는데 올해는 기대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고 한숨지었다.

일부 농민들은 고사한 무화과나무를 걷어내고 새 묘목을 심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농민들은 올해 수확량

이 예년의 20~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무화과가공 식품을 생산하려던 영암 무화과클러스터 사업단도 상품화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영암 무화과는 풍부한 일조량에 힘입어 당도와 열량이 높고 식이섬유 함량이 많은 데다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등이 풍부해 어린이, 노약자 등의 건강 보조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이상희기자 lsh@



소쇄원 가는길 금계국 만개

담양군 남면 자곡리 한국 가사문학관에서 소쇄원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금계국이 만개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북아메리카 원산인 금계국은 6~8월에 노란 꽃이 핀다. <답변 제공>

장성군 ‘나무은행’ 조경예산 절감

2008년부터 공공사업장에 1000여 그루 공급

장성군이 ‘나무은행’을 운영, 도시녹지 확충과 조경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나무은행’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나무 가운데 보전 가치가 있거나 조경수 가치가 높은 나무를 묘포장에 옮겨 심어 일정기간 관리로 수령을 조절한 후 공공용 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지난 2008년부터 ‘나무은행’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각종 공공용 사업장에 나무 1000여 그루를 식

재해 조경예산 2억9000만원을 절감했다. 군은 올해도 소나무 150여 그루를 삼계 사장과 북일 신흥, 북이 신평리에 식재해 5000여평원의 예산절감과 도시 미관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도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공공용 사업의 주진에 따라 조경수의 수요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로 우량한 조경수를 생산해 적재적소에 식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동부취재본부=선근기자 sun@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보성군 이달말까지 접수

보성군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과 군정발전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대안 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주요 공모분야는 ▲창의적 정책방안 ▲군민생활의 편의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사항 등 각종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원고지 30쪽 안팎의 군정발전 방안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군 기획예산실(061-850-5021, 5022)로 하면 된다.

전남도 올 사료작물 재배 수입대체효과 1855억 원

청보리 등 2만7000㏊서 53만t 수확

전남도가 배합사료비 절감을 위해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한 결과 올해 2만7000여㏊에서 총 53만t을 수확, 총 2301억원의 소득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청보리 재배면적은 2만7000㏊로 지난 해보다 3000㏊ 늘었으며 전국(8만㏊)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품종별로는 청보리 3756㏊, 훈파

로 경종농가는 청보리 재배로 인한 순소득 446억원, 축산농가는 수입조사료 대체효과 1855억원 등 총 2301억원의 재배효과가 기대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국내산 청보리는 소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채비농가 소득, 겨울철 경관 보전 등 농축환경 개선,

농경지 이용률을 제고, 수입조사료

대체에 따른 외화 절감 등 청보리

재배로 1석 5조의 과급효과가 있

다”며 “앞으로도 이런 장점을 적

극 홍보해 겨울철 유휴지, 간척지 등을 최대한 활용, 2012년 청보리 등 동계 사료작물을 4만㏊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현재 국제 옥수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가 급등한 362달러로 폭등함에 따라 농협사료 기준 배합사료값이 평균 15.8% 인상돼 25kg 포대당 1만2857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식품 식자재 관리

순천농협

전국 1호 우수업체

순천농협(조합장 이광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시범사업에서 전국 제1호 우수 관리업체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교급식 등 농식품 식자재 대량 소비처의 증가로 농식품 식자재 관리업체가 난립,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를 발굴, 지원·관리함으로써 농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됐다.

전국 농식품 식자재 관리업체 7곳이 경합을 벌인 이번 선정과정에서 순천농협은 위생관리, 원산지확인, 안전성 조사, 품질관리 등 모든 평가항목을 통과했다.

이광하 조합장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체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 고객과 소비자에게는 만족과 신뢰를 생산자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환경분쟁위 결정…유사 소송 잇따를 듯

이순신광장 공연소음 피해 여수시 배상책임

여수 이순신광장 공연소음 피해 여수시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발생하는 공연소음을 피해에 대해 여수시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지난 3일 이순신광장 인근에 위치한 독서실 대표 정모씨가 광장에서 발생하는 공연소음으로 독서실 영업이 어렵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광장 사용승인인 여수시가 370여만원을 배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수시는 “광장이 도심 속의 시민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자라도, 주변현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소음피해 저감노력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산발적으로 치러지는 각종 행사에 대해 피해배상 결정이 내려지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시설이 독서실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1회에 한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꿈나무들 구김없이 튼튼하게 자라야죠”

LG화학 여수공장 아동센터 스포츠용품 지원

LG화학 여수공장이 여수지역 12개 지역아동센터에 스포츠용품을 전달하는 지원활동을 2주동안 펼친다.

14일 LG화학 여수공장(주재임원 안태성 전무)에 따르면 12개 단위로 활동은 지난 10일 화성품공장의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



지 2주에 걸쳐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청취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니(Genie=소원 들어주기)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학습 기자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올해는 ‘건전한 스포츠활동 지원’을 주제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마음껏 뛰어놀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지역아동센터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번 지원 활동이 지역의 미래 꿈나무들이 건강과 기초 체력을 향상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대인동삼일부동산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별 유지빌딩 501

소태동 잡종지매매.

●동구 소태동 대아이아파트 부근 .접종지, 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역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완도 독실 매매.

●안동군 금일면 독실 매매. 면적 : 198.184㎡(59,950평).

매매가 평당 2만원. 지하수 있음. 종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전원주택지 매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 일반주거지역. 미漏나 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3.3㎡당 365,000원).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 264㎡(80평). 매매가 3억.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16만원.

농장 및 개간가능 임야 구합.

●무안 험평 평원 등 광주인근 토질 좋은 곳. 개간 가능한

임야도 좋음. 10,000㎡ - 70,000㎡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

2동. 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운암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억원

월세 1천3백만원 매매가 20억원

☆. 매곡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450만원 매매가 7억4천만원

☆. 광송간 대로변 운전자수지 4거리 인근

3층건물 매매가 5억7천만원

☆. 광송간 대로변 4층건물 매매가 8억5천만원